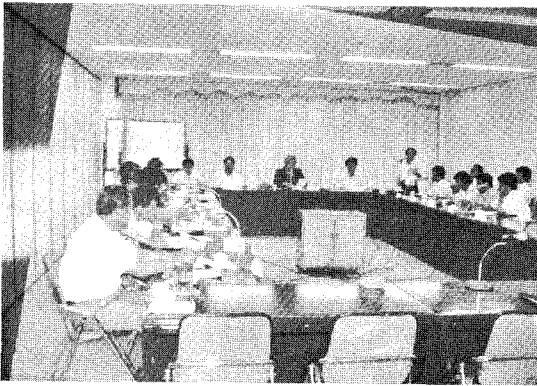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90년 제3차 이사회 개최

포천·부평·천안산란, 서산육계분회설치 승인



지난 7월31일 금년도 제3차 이사회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89년 12월7일자로 본회 직제규정이 개정되어 90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90년 4월11일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상의 모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용어

또는 자구를 수정하는 규정일부 개정 및 민원봉사실 설치 운영, 양계산업발전특별대책위원회구성(안), 분회설치승인, 자문위원 추가위촉동의 등에 대한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전무 해임 및 선임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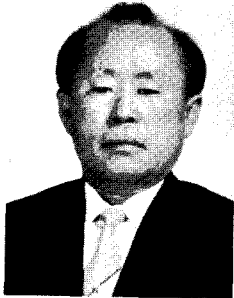
본회 규정중 개정제안된 규정은 정관개정과 관련 개정된 내용으로 회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에 있어 현행 부화회원은 축산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부화업을 경영하는자, 종계회원은 축산법에 의한 종계업 등록을 필하고 종계업을 경영하는자, 채란회원은 10,000수 규모 이상인자, 육계회원은 10,000수 규모 이상인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 양계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에 관계없이 양계업을 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과 및 전문위원회 규정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종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는 부화협회가 정식 허가됨에 따라 본회 규정에서 부화업을 삭제하였다.

또한 회원봉사실 설치운영은 회원의 대정부(지방행정기관포함)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민원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보조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협회와 회원간에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90년8월부터 9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동의하였다.

양계산업발전 특별대책 위원회 구성운영은 양계산물의 전면 개방(97년)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요청되어 양계협회가 직접 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처리키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하였으며, 서산지구 육계분회, 포천군 운천지구 산란계 분회, 부평지구 산란계 분회, 천안지구 산란계 분회에 대한 업종별 분회설치 승인이 있었다.

또한 황인옥전무가 정년퇴직으로 인해 해임되어 후임으로 닭경제능력검정소장 겸 총무부장인 이규성전무의 승진발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본회 이규성 전무 취임



◀ 이규성 전무

본회는 황인옥 전무가 지난 7월31일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후임에 이규성(李圭成, 55세)전 총무부장을 승진발령하였다.

신임 이규성 전무는 경기 수원생으로 수원농림고 축산과를 졸업하고 시립 서울농업대학 수의학과를 졸업(수의사)하였으며 농림부 행정요원으로 시작, 경기도 축정과, 김포, 안성, 포천, 평택군에서 부읍장을 지낸 축산공무원으로 20여년을 봉직한 축산·수의행정통이다.

지난 83년 3월 본회에 입사, 닭경제능력검정소장, 총무부장직을 거치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 회원 및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큰 능력을 발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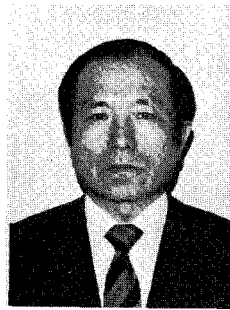
공무원 재직시 옥조근정훈장 포상, 농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으며 수회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회 재직시 1984년 11월 검정소 신축공로표창도 받은 바 있다.

이전무는 이문형씨의 장남으로 노부모를 잘모시고 있는 효자로도 지역에 소문이 나있으며 부인 허수남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본회 황인옥 전무 정년퇴직

지난 7월31일자로

지난 7월31일자로 본회 황인옥(黃仁玉 61세)전무가 정년퇴직하였다.



◀ 전 황인옥 전무

황인옥 전무는 82년5월 본회에 입사, 8년간 봉직해 왔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충남 대덕군 및 대전시산업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축정계장, 축산계장, 서울시 가축위생연구소장, 서울시산업국 농정과 가축위생계장, 서울시 산업국 농축과 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본회에 부임한 직후부터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며 대정부 접촉을 통하여 축산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왔다.

특히 생산자 자조금제도 도입 및 무허가계사 양성화조치, 검정소 설치 및 이전신축, 면세대상 양계규모 10,000수 상향조정, 계열화사업기반조성, 병아리생산량조사 기반조사사업, 소득표준율 3차 인하작업, 양계속보 발간,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 본회 자료실설치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겨 양계업계산업 발전의 산과역할을 하였다.

공무원 재직시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우량공무원표창 3회 수상, 모범공무원표창 3회 수상, 축산사업 유공자 포함, 대통령표창 등을 받기도 하였다.

닭, 돼지고기 중금속 검출 과장 보도

—본회 농진청에 강력한 항의—

지난 7월 10일과 11일 전국의 일간신문 및 TV, 라디오에서 농촌진흥청(가축위생연구소)이 조사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판 닭고기, 돼지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내용은 마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대부분에서 카드뮴,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다.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복중성수기를 앞둔 양계농가에 소비위축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허가된 배합사료를 먹여 닭을 기르고 있는 전국의 양계인들은 이러한 실험자료를 유출한 농촌진흥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89년에 시험결과가 나왔으면 즉각 원인규명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채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지 수입개방시대를 앞두고 전전공공하는 양계인들은 관계기관에 강력한 응징조치를 강구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양축가들에게 납득할만한 해명과 후유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답변할 것을 농촌진흥청에 항의단을 파견하여 요구하였다.

○사람이 먹지 않은 콩팥의 중금속함유조사보고가 전문의식이 결여된 전국의 신문기자에게 유출시켜 보도케된 경위

○기사(보도) 내용의 사실여부

○본건 보도로 인한 닭고기 소비위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이에대한 양계인들이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전 일간지에 해명광고

이에대해 농촌진흥청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연발생하에서 생산된 모든 작물에 미량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사료로 사육된 가축은 미량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이 상례이며 살코기 경우는 사람이 매일 일생을 먹어도 문제되지 않는 허용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또한 1차년도 실험자료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만큼 결과는 내부적으로만 보고된 자료로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것은 아님을 해명하고 언론에 해명 보도가 나가도록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TV 등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여 방영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난가지동응답기 설치 585-3548



7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 겸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본회 고시가격과 농장수취가격간에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이중가격이 심화될수록 난가 고시가격제도의 권위가 떨어지며, 경기회복기에도 이중가격이 고질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불투명한 여름경기를 양축가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주어 환우나 노계도태를 유도키로 하였다.

난백과 난분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수입업체가 지금처럼 자유스럽게 수입하도록 방관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설득과 압력을 가함으로써 수입을 줄이도록 하자고 했다.

한편 7월20일부터 난가자동응답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동응답기 번호는 585-3548번이다.

중계분과위원회 개최

7월 중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계란 군납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 무더운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므로 중계의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병아리공급은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적정규모의 입란계획으로 건전한 채란농가의 고객확보 및 관리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경진대회 활성화 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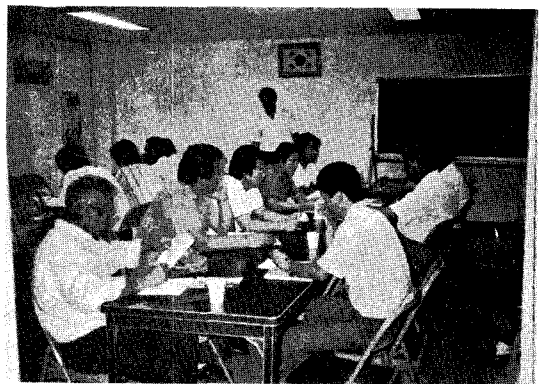
90년 3차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수환)가 지난 7월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22일 부산병아리감별학원에서 개최된 1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에서 감중

감별사에 101명이 응시하여 31명이 합격하였고, 고등감별사는 2명이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였다고 결과 보고를 하였다. 또한 시험결과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 분과위원들은 이번 시험은 공정하게 실시되었으며 민원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성감별사의 수준향상을 위해 경진대회를 활성화 시키기로 하고 금년 2차 자격시험은 오는 11월에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7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가격이 하락하자 양념통닭가격을 인하하여 닭고기 소비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맥스칸양념통닭 윤종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닭고기, 돼지고기, 중금속오염 보도에 대해 그동안 경과보고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측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며 과장 보도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한 노력을 육계생산자 스스로 해야된다고 다짐하였다.

향후 병아리 부족현상은 중계입추가 증가하고, 중계생산성이 향상되며, 또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어 병아리 부족현상은 곧 해결되리라고 전망했다.

양계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협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연구—



본회는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신홍중 회장을 비롯한 업계 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등 양계업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수입개방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을 협의하기 위해 준비작업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구성될 대책위원회는 원자재에서부터 생산, 유통은 물론 정책, 세제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사항을 연구하여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위원회여야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인 대책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구성인원,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본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키로 하였다.

중추농장 간담회 개최 매일 정기모임 갖기로 결정

중추농장 간담회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이 처음으로 개최된 중추업자 간담회로서 동업자끼리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량추를 생산하거나, 속임수 판매로 인해 중추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유통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아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는 농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추사육자들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위해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는데 매월 2째주 화요일 오후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편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최 한 계장으로부터 중추업 등록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설명이 있었다.

만화 “즐거운 생일파티”제작 배포 닭고기 소비촉진용 2만부 제작



본회는 소비자에게 닭고기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만화 “즐거운 생일파티”를 제작하여 배포중이다.

국판 18페이지로 된 책자는 유명 만화가 이소풍씨의 작품이다. 주요내용은 닭날개에는 콜라겐이란 성분이 많아 피부를 좋게해 주며, 지방질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식품이라고 했다. 또한 어린이 성장발육, 노인 및 환자의 원기회복 등 스테미너식품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술안주로서 적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닭고기 구입요령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신선한 닭고기는 탄력성이 좋고, 고기색이 선명하며, 윤기가 있으며, 목과 다리가 바짝 잘라졌는지 확인하고 잘라진 부위가 선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기색이 질거나 자주색은 불량품이라고 닭고기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본회는 이번에 2만부를 제작해 업계에 배포했으며 사료회사 외식업체 등 관련업계의 협조를 받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천채란분회 홍보협찬금 100만원 전달



△ 전병훈 분회장

본회 이천채란분회(분회장 전병훈)는 전회원이 소비홍보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100만원을 모금하여 지난 7월 채란분과위원회 월례회에서 소비홍보협찬금을 본회에 전달하였다.

또 이천채란분회는 지난 23일 본회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가전망과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한편 회원간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8월 중에 일본 양계산업 시찰을 갖기로 했다.

동두천채란분회 7월 월례회 개최

본회 동두천채란분회(분회장 이원기)는 지난 18일 본회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이어 난가회복대책 등에 대한 집중 토의가 있었다. 또한 분회 상반기 결산보고와 회원들의 분회 운영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천육계분회 7월 월례회 개최

이천육계분회(분회장 김동재)는 지난 7일 본회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육계경기전망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또한 6월 육계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병아리입식 거부운동에 대한 대처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회 회원봉사실 설치 운영

10월부터 실시

본회는 오는 10월부터 회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회원봉사실은 회원의 대정부(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민원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여 주거나 보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기 위해서 설치된다.

대행업무의 대상은 △ 정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신청업무 전반 △ 법률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 △ 기타 양계업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